최악의 습기 먹은 폭염…광주·전남 7월은 '한증막'

광주 7월 습도 90.5%…80대 열사병 사망 등 온열환자 급증

22개 시·군 폭염특보 … 식중독 등 전염성 질환 기승 우려도

광주·전남지역에 연일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밭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등 폭염 피해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올해 폭염은 이례적으로 습기를 잔뜩 머금은 '한증막(汗蒸幕)' 현상을 빚어내면서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광주에 올해 두 번째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역대급 폭염이 도심을 뒤덮고 있으며, 전남도 15개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나머지 7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문가들은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선 갈증이 없더라도 자주 물을 마시고,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등도 철저히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온열 질환 호소 잇따라…사망사고도=지난 21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동산동에서 밭일을 하던 김모(여·80)씨가 농로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손녀가 발견했다. 김씨의 손녀는 경찰조사에서 "이날 오전 9시께 집을 나섰던 할머니가 점심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밭으로 갔더니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께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근린공원에서 산행을 마치고 공원을 산책하던 윤모(70)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최근 여름철 단골 질병인 온열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지난 20일 총 6명의 열 탈진, 열 경련,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으며, 21일과 22일에도 각각 3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타났다. 또 지난 19일부터 3일간 하루 평균 73여건의 벌집 제거 요청 신고도 접수됐다. 벌 쏘임 환자도 7명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은 실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야외활동을 가급적 삼가하고 집안에서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 후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7월 평균 습도 90.5%…역대 최대급=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월 한 달간 광주지역의 평균 습도는 79.1%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로 점차 오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평균습도는 90.5%를 기록해 지난 5년간 7월 평균(79.1%)보다 11.4%포인트, 지난달 보다는 22.3%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에 형성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또다시 고온 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되고 있는데다, 강한 일사현상까지 겹친 탓에 견디기 힘든 후텁지근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는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광주·전남과 중부지역을 오르내리며 장마전선을 형성해 일정기간 장맛비를 뿌린 뒤 폭염이 찾아오는 게 전형적 패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중부지역에 머무른 탓에 습기만 잔뜩 머금은 폭염이 호남권에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가장자리에 둥지를 튼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워낙 커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호남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충북 청주 인근 등에 머무르면서 집중 호우 등을 쏟아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각각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한다.

폭염이 이어진 23일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역 '만남의 광장'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는 등 무더위를 피해 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경기·인천 물폭탄…도로·주택 침수피해 잇따라

호남 향우 밀집 지역 100㎜ 이상 집중호우

호남 향우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인천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피해 등이 이어지고 있다.

1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내린 23일 경기북부 지역에는 하천물이 불어나 캠핑객의 발이 묶이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기준 고양 150mm, 파주 102.5mm, 양주 107mm, 의정부 80mm 등 많은 비가 내렸다.

기습 폭우로 이날 오전 10시께 포천시 이동면의 한 캠핑장 앞 다리가 침수돼 야영객 21팀 125명이 고립되기도 했으며, 고양시에서는 총 128가구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경기남부 대부분의 지역에도 이날 오전 한때 물폭탄이 쏟아졌다.

인천에서도 이날 집중호우로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선 일부 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고 지하철 공사장에 근로자 7명이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또 시내 주택가 저지대에서 총 79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는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한편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중앙회측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호남출신은 전체 인구의 30%정도인 470여만명에 이른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5·18 의인' 故 안병하 도경국장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

1994년 5·18보상금 수령 순직 인정 매달 보훈급여급도 심의위 "보상금 반환하라" 유족들 "아버지 명예 실추" 2010년부터 7년째 법정투쟁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지급된 5·18보상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님에 대한 명예마저 인정하지 않는 듯 해 매우 서운합니다."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만난 안호재(58)씨는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1980년 5월 전남경찰국장이었던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셋째 아들이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그는 이날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준비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안 전 경무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직무유기 및 지휘포기'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한다. 보안사령부로 끌려간 그는 모진 고문까지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5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안 전 경무관의 가족은 그의 병원비로 퇴직금을 다 쓰고 집까지 내놓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고 한다.

안 전 경무관의 아내 전모(85)씨 등 유족들로서는 1994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의해 불법구금 보상금 832만원을 포함한 총 1억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작은 위안이 됐다.

경찰로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유족은 지난 2006년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2010년 9월부터 매달 전씨에게 보훈급여금(130여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전씨가 받은 5·18보상금과 보훈급여금이 이중보상이라고 지적했고 2010년 1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환수 통지 처분을 내렸다.

안씨는 "5·18보상금은 아버지가 8년 동안 병원을 다니며 쓴 돈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고 보훈급여 혜택은 어머니만 대상"이라며 "5·18로 인한 피해 보상과 순직에 대한 보상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 안병하 국장

유족들은 5·18보상심의위를 상대로 지난 2010년부터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8월 미망인만 유족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니 세 아들에 대한 보상금 반환을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상소를 한 상태로 결심공판은 8월 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안씨는 이번 기회에 정부는 물론 광주시와 전남경찰청이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로서의 안 전 경무관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남경찰청이 안 전 경무관을 비롯한 5·18 당시 전남경찰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올해 5월 처음으로 광주시에서 화환을 받은 점은 안씨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20일 안호재씨가 아버지 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의 이름을 딴 인권모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 6월15일 청와대가 마련한 국가유공자 가족 초청 행사에 처음 참석한 어머니가 김정숙 여사에게 아버지에 관한 소송 내용을 들려줬고, 보훈처 등에서 관심있게 바라봤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는 만큼 아버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직장동료 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지적 장애 여성 신고 접수…전남경찰 수사 나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A(여·25·지적장애 3급)씨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장애인 약취·유인 강간)로 모 지자체 공무원 B(55·무기계약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직장 동료였던 C씨의 딸이다. B씨는 지난해 3월 동료였던 C(57)씨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A씨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접근, 최근까지 모텔 등지에서 10여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A씨는 평소 '삼촌'이라 부르던 B씨가 불러내자 아무 의심없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B씨에게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놨으며, 어머니는 마을 이장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B씨가 1년 여 동안 이같은 짓을 저질렀음에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지자체에 사표를 낸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성폭행 피해여성 쉼터로 옮겨 보호하고 있으며, 통신기록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한 후 B씨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해자 B씨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A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산단 변압기 고장 정전

21일 오후 1시20분께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모 화학공장에 설치된 변압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했다.

이날 정전으로 모 화학공장 작업장 3곳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업장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가동이 일시 중단됐지만 화학공장 사업장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은 곧바로 복구돼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요트대회 참가하려던 만취 선장 그물에 걸려 '딱 걸렸네'

쌍나팔

○…만취한 60대 선장이 통영의 한 요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의 요트를 운항했다가 영광 안마도 해상에서 프로펠러가 그물에 걸리는 바람에 음주사실이 들통.

○…23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요트 F호(6t) 선장 김모(62)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전북 부안 격포항에서 자신의 요트를 몰고 통영으로 향하던 중 영광군 안마도 동쪽 10km 해상에서 다른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뒤, 음주를 의심한 상대편 선장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는 것.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219%가 나온 김씨는 "이날 새벽 5시30분께 다른 승선원 2명과 함께 격포항을 출발했으며, 이동 중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기타]					
2016타경 3850	1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1-1주유소용지929㎡	기타	114,791,56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기계기구포함[일부소재불명].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참조
		해남군 북평면 백도로 531 124.5㎡ 6.15㎡ 부속건물 창고9.8㎡ 대기실10.56㎡ 제시외 보일러실 4.8㎡,기계기구주유기 1식	주유소,창고	114,791,560	
		동소 531 2호78㎡	캐노피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3843	1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458-21 522㎡[조점애105/1860지분전부]	전	17,824,200 17,824,20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만허용.목록1~3,5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462 2112㎡	전		
		동소 462-4 337㎡	전		
		동소 463-1 532㎡	대		
		동소 산82-3 17355㎡[목록1과지분동일]	임야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4082	1	해남군 삼산면 충리 1475 1958㎡[농지취득자격증명요[미제출시보증금반환하지않고 이를배당할금액에산입함]]	답	17,230,400 17,230,4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8. 7.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8. 14.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